

韓·美間 기술보호협력

● Philip Hughes / 美 國防省
정치군사문제담당
副次官補

Philip Hughes는 1980년 4월 1일부터 국방성 정치군사문제담당 부차관보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그는 전략기술의 移轉과 통제 및 美國製 무기의 商用수출을 위한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1985년 9월 국가안보회의 南美文제담당 국장, 1981년 2월부터 국가안보문제담당 부회장 보좌역을 역임하였다. 또 국방성 정보정책담당 부국장, Brookings 연구소의 특별연구원, 下院 예산부 국가안보문제담당 분석관을 역임하였다.

Hughes씨는 1953년 9월 7일 Ohio州 Dayton에서 출생하였고, Dayton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Tufts대학에서 법학 및 외교 석사학위, Havard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 국방장관상인 優秀公務훈장 (Medal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을 수상하였다.

1988년 3월 대통령은 Hughes씨를 商務省 수출시행담당 차관으로 지명하였으며, 현재 上院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韓·美 간의 방위협력은 지난 35년간 괄목할만큼 성장하였으며, 미국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단순히 군사력을 제공하던 수준을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다.

한국군은 미국과 월남에서 어깨를 같이하여 싸웠고, 우리는 한국군의 방위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기술을 제공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며, 양국간의 문제점을 피할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의 방산품을 우방에 수출하는데 따르는 지침을 같이 발전시켰다. 최근 한국군의 戰力은 F-16구매와 같은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히 伸張되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한·미간 안보협력의 또다른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기술보호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년에 관심깊게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Toshiba社(東芝機械)와 노르웨이 Kongsberg社가 컴퓨터로 작동되는 정교한 다축 프로펠러 밀링기계를 소련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은 미국정부가 지난 8년간 강조해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소련은 자국의 군사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서방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자 전문적으로 조직되고 중앙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西歐 우방들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Toshiba사건」은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소련이 서방의 군사기술을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한 공세로서는 처음이 아니며, 또 가장 최근의 일도 아니다.

약 8년전 우리는 프랑스정보기관과 「farewell」이라는 암호명의 소련정보원으로 부터 소련의 불법적인 기술획득프로그램의 성과와 조직, 그

대상 및 목적등을 파악하였으며, 그것이 매우 적극적이고 광범위함을 알게 되었다.

최근 프랑스 당국은 2개 집단을 간첩법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하나는 南部 프랑스의 소련 기술 밀수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주요 공작기계 회사의 최고경영자 4명으로 소련에 불법적으로 공작기계를 수출하였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발표되지 않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예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이 무기류가 아닌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소련이나 그 동맹국들은 서방의 군사기술을 획득하고 이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주로 간첩활동이나 제3국에서 견본품을 획득하여 달성한다. 하지만 무기제조를 위해 중요한 장치를 갖춘 民需用 장비는 구입을 하여 소련제 장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서방측 업체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소련의 불법적인 구매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세째, 40년간 COCOM(對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전략물자 교역을 조정 및 제한하고 있는 16개 국가의 정부는 이런 교역으로 속고 있는 것이다.

서방측 정부가 속고 있었다는 마지막 지적은 현시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지난 8년간 우리와 COCOM의 회원국들은 소련의 기술절도행위와 이것을 그들의 군사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규모를 파악하고 나서, 동구권에 전략적인 기술을 판매할시 서방측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Toshiba사건에 비추어볼때 우리의 노력이 완전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소련의 불법적인 기술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Toshiba 사건」과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련의 기술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과 COCOM 회원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1970년대의 제한품목 목록에 최신의 주요 전략품목을 포함시켜 새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소련의 기술밀수 활동에 관계되는 정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수출품목이 소련이 아닌 원래의 목적지에만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 수출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는 요원들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략적으로 민감한 업체들이 소련의 기술밀수에 대해 그들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련과의 불법적인 기술이전에 관련된 누구라도 처벌을 받도록 강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COCOM의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Kama River Truck회사와 같이 소련에 턴-키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둘째, 소련이 서방에서 군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산업용 장비를 필요량만큼 구입하고자 할때 더욱 어렵고, 비싸며 불안하도록 만들었다. 또 그들이 그런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끝으로 우리가 취한 특별한 보호조치들로 슈퍼컴퓨터와 같이 굉장히 민감하고 軍 및 민간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장비들이 소련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한국이나 한·미간

안보협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와 COCOM 회원국들이 소련과 그 동맹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수록 그들은 신흥공업국과 같은 새로운 공급원을 찾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한국이 지난 35년간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머지않아 이러한 공급원으로서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교역관계도 제한적이거나 실제 거의 없고 강력한 반공국가이자 미국의 맹방으로서 항상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놀라운 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장비의 생산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소련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선도적인 반도체공급국가중 하나로서, 2년전 1메가 D램을 연구 개발한 3개국에 속한다. 이처럼 최신 마이크로 전자공학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한, 한국은 동구권 국가들이 다른 곳에서 구할수 없는 물품의 공급처로 매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은 컴퓨터, 시험 및 측정 장비, 수치제어장비등의 주요 공급국으로 浮上하고 있다. 이런 종류들이 바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비들로서 소련이 그들의 군사프로그램을 위해 서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다.

물론 한국의 방산능력이 탄약, 군수품, 소형 화기, 곡사포 및 장갑차량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전자부품이 포함될수 있는 정교한 방산장비에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한국의 장비

는 西方 방산기술분야의 실마리를 소련에게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동구권국가들은 한국과의 교역확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한국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런 형태의 사무소는 다른 많은 지역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국가들이 소련에서 사용될 전략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도 자체적으로 중국이나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관계를 조심스럽게 확대함으로써 외교적인 고립의 잔재를 없애고 관계를 확장코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역관계를 넓히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은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실제로 서구의 모든 우방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련, 중국, 동구권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비전략 물자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서방의 전략적인 기술우위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는 이런 문제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작년에 전략적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은 현재 국회의 최종 승인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중에는 신문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협정은 아주 간단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COCOM 16개국과 유사한 절차를 확립할수 있도록 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장비들이 소련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자유진영으로 향하는 전략적상품을 포함하는 교역활동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조사활동을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보호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

는, 아니 확신하는 바는 이 시점에서 협력이 상호안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장래에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인은 한국과의 기술보호협력에 관해 몇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이러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미국의 맹방인 오스트레일리아나 싱가포르뿐 아니라 서구의 중립국가들이 행하였던 前轍을 따르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그들의 전략적인 기술을 소련권으로 流出하는 거점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다.

둘째, 기술보호협력은 한국이 非共産圈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역을 확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구권국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 것을 수출하더라도 한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우리가 체결한 기술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을 수출할때 많은 주요 사항들이 단순화되고 자유스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정부나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할 것이다.

네째, 우리가 합의한 기술보호조치를 한국정부가 아무리 신중하게 이행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업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업체의 신뢰도와 진실성을 조심스럽게 파악하는 보호 프로그램,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인 판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시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경계태세를 갖추으로써, 업체는 서방의 전략적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인 기술을 보호함에 있어 한국과 적극적으로 신속하며 중요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업체 특히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략적인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상호간에 유익한 이와 같은 협력을 보장하는데 공헌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기쁜 소식 나쁜 소식

노예船에서 40명의 노예들이 푹푹 찌는 더위속에 비지땀을 흘리며 노를 젓고 있는데, 갑판장이 오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노 젓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내 말을 들어라. 오늘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각각 전하겠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돼지 바베큐를 마음껏 먹을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술도 진탕 마실수 있다.』

「와!」하며 노예들이 함성을 지른후 갑판장이 말을 이었다.

『다음은 나쁜 소식이다. 점심식사후 船長님께서 水上스키를 타시겠다.』